

전교생 모두 시인...창의력 쑥~ 시와 놀아요

고흥 점암중앙중학생들 창작 시집 '시시락락' 발간

시 창작 프로젝트 진행

시화 제작해 전시회도 개최

고흥의 작은 학교인 점암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창작시집을 발간하고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점암중앙중학교 전교생 20명은 최근 자신들이 각각 창작한 시를 한데 묶은 '시시락락' (詩詩樂樂) 1호집을 발간했다.

'고흥점암중앙중 시 창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창작시를 캘리그래피 시화로 제작해 교내에서 전시회도 열었고, 전교직원과 전교생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직접 창작시를 낭송했다.

학교는 '시 창작 프로젝트'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국어 교과 시간을 활용한 8시간 특강을 통해 시를 창작하게 됐다.

전주 고흥점암중앙중 교장은 "전교생 20명의 소규모 학교 교장으로서 맑고 착한 심성을 지닌 학생들의 모습이 자랑거리였는데 전교생 시인 배출이라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섬유역본부 전남중부지사, 나주 동강초에 쉼터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중부지사(지사장 김선웅)는 최근 화순지역 애원과 나주동강초에 쉼터(휴게소)를 조성하고, 선공기와 보양식 등을 전달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호남대, 중국 산둥노동직업대학 '윈-캠프' 단기연수 성료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손원이 처장)는 최근 국제교류처장실에서 중국 산둥노동직업대학 '윈-캠프' 온라인 단기연수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DOUYU.COM'을 통해 생중계됐다. <호남대 제공>

한전 광주전남본부, 24개 선별진료소에 위문품 전달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남승)는 최근 광주·전남 24개 선별진료소를 찾아 1200만원 상당 건강기능식품과 간식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전남도교육청,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업무협약

전남도교육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하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직업 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신설되는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진로직업 지도 인력을 배치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육대상자 선발 및 일정관리, 현장중심 진로프로그램 개발 협력, 전환교육 연계 등을 맡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시설·설비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자리 창출 지원, 각종 연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지난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정위



원회에서 최종 선정됐으며 순천에 설립된다.

회류, 마트, 사서, 사무행정, 요양보호, 호텔, 세탁 등 10개 직종에 대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파트너사를 선정해 직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과정

도 운영해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남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애타게 기다리던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설립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훈련센터 설립은 전남지역 장애학생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천야구의 대부'

김진영 전 삼미 감독 별세

김진영 전 삼미 슈퍼스타즈 감독 3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1935년 인천에서 태어난 김 전 감독은 인천고 재학 중 팀에 3번이나 전국대회 우승컵을 안기며 '인천이 낳은 최고 야구 스타'로 받들었다.

1983년 인천을 연고로 하는 삼미의 지휘봉을 잡은 고인은 해당 시즌 에이스 장명부를 앞세워 한국시리즈 진출을 노렸지만, 삼미는 그해 전·후반기 모두 2위에 그쳤다.

1985년에는 KBO리그 최다인 18연패의 수모도 당했다. 고 김진영 전 감독의 KBO리그 감독 성적은 121승 8무 186패다.

고인의 아들은 '미스터 인천'이란 애칭을 얻은 경기 SPOTV 해설위원이다.



/연철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앙코르 20주년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그들이 그놈이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퀴즈 위의 아이들(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별 보람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다크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팔도밥상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속 위기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재)	
4	00 도올학당 수다승철(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최강 1교시(재)
8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정답뉴스 퀴즈쇼 오늘 배송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들이 그놈이다	30 공부가 머니?	
10	00 일곱 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 50 더 라이브	40 육박방의 문제아들	50 PD수첩	2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5 십시일반(재)	
12	10 KBS결핵 다큐멘터리(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이맛에 산다(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워스	12:30 EBS 마스터	19:00 형사 가제트
07:30 뽀뽀뽀 뽀뽀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7:45 로보카 폴리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8:45 자이언트 팽TV
08:00 당동맹 유치원	14:40 레이디버그	20:00 극한직업 스페셜
08:30 코코몽2	15:40 해오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안데스와 히말라야
09:00 픽시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안데스의 바다, 티티카카>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30 페파 피그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돌 오른 여름 2부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0 당동맹 유치원(재)	나는 도둑기사로이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아동명명 귀여워2	22:45 건축탐구 - 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빈 후드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45 히어로 씨클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4일(음 6월 15일 己卯) ☎ 010-9790-8237

<p>36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48년생 가까운 이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삼사일언하면서 몸과 마음 가짐에 신경 써야겠다. 60년생 대수롭지 않다. 72년생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면 곤란하다. 84년생 굿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잠자코 있자. 96년생 모순점이 보일 것이니 지체 없이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2, 81</p>	<p>42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54년생 양면성을 띠고 있다. 66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78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 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 하라. 90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딜 수밖에 없다. 02년생 비중 있게 전개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9, 72</p>
<p>37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49년생 소신이 있어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61년생 인위적이 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73년생 안정된 마 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85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97년생 고뇌 에 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83</p>	<p>31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43년생 객 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대 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67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79년생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니 잘 챙겨달라. 91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만 할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행운의 숫자 : 47, 53</p>
<p>38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50년생 인내심을 발휘 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62년생 모든 일 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74년생 스스로 해나가 는 것이 가장 낫다. 86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감정을 부 르리라. 98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 으니 삼사일언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91, 71</p>	<p>32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44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다. 56년생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68년생 회복제로 돌아서리 라. 80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 서는 아니 될 일이다. 92년생 이타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43, 94</p>
<p>39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51년생 치열할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63년생 경쟁자 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75년생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 통성을 보인다면 부가적 이익을 꾀하라. 87년생 별개의 개념이니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99년생 승란이란 위험의 잠재이니라. 행운의 숫자 : 03, 56</p>	<p>33년생 방심하다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시하자. 45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57년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최상이다. 69년 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81년생 전체적인 정 황이 본인의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자. 93 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32, 54</p>
<p>40년생 상대의 갑작스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 다. 52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이다. 64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니라. 76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88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로다. 00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 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1, 55</p>	<p>34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46년생 아 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58년생 지나 은 세월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70년생 이진투구의 양상을 띠 수 있다. 82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94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 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60</p>
<p>41년생 기존의 계획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53년생 심 사숙고 한다면 손재를 막는다. 65년생 쉽게 장담하지 말라. 7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89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 만 응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01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9, 50</p>	<p>35년생 목전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일단 인하고 불일 시이다. 47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59년생 소극적인 이동수가 비할 뿐이로다. 71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풍광이로다. 83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 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95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92</p>